

# 現代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의 비판적 고찰

서울大學校 教授 박 상 섭

## 1.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즉 좌파국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은 그 비판을 위해 채택된 시각과 논의의 수준이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성을 위해서는 현대 좌파국가이론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유주의적 논의들의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논의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좌파 국가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출된 개념군들로써는 좌파이론에 충분히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현대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제대로 비판·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이론과 현대 좌파국가이론을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두가지 논의가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문제를 추출하여 그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우리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그 문제가 표출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이라 할 때 여기에는 다양한 부류의 논의들이 포함된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0~1930년대 이태리의 그람시가 우선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소련의 「정통적」 공산주의에 가려 빛을 못보던 이 그람시의 이론을 부활시킨 영국의 밀리반드, 또 이 밀리반드와의 논쟁을 통해 유명해진 폴란차스, 독일에서는 자체논쟁을 통해 국가의 의미를 부각시킨 국가도출학파의 제이론가, 현대 자본주의체제의 변모과정에서 국가의 의미를 부각시킨 프랑크푸르트학파계열의 하버마스나 오페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의 국가문제의 논의는 이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 바 역사학 계통에서의 페리 앤더슨등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만을 배타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으나 상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통적인 역사사회학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다양한 학자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몇의 예외는 있으나(예컨대 하버마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국가에 관한 논의를 총체적인 사회이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논의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개조하려는 노력에서 결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제시하는 국가이론은 사회전체내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국가라는 현상을 통해 사회전반을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가 경제과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에서 결과한 제반 이론적·실천적 오류에 대한 교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마르크스 자신에 의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으나 마르크스 자신이 경제과정에 관한 탐구에 몰두함으로써 국가문제의 논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였고 이것이 뒤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해를 촉발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은 마르크스에서 나타나는 국가이론의 단서를 포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3.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마르크스 자신의 국가관념을 계승·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 국가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이론이 다 그렇듯이 마르크스의 국가이론도 일정한 전통 속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직접적으로는 헤겔의 국가관, 넓게는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근대 국가관념 전통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근대적 국가관념은 중세 신학적 국가 관념위에서 있는 봉건질서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중세적 국가관념 또는 정치질서의 관념은 신권의 위탁이라는 가정하에서 있었으나 이 관념을 떠받치는 현실적 정치력이 봉건질서의 붕괴와 함께 퇴락하면서 신권설의 개념은 파괴되었다. 새로이 등장하는 절대군주의 정치권력을 세속적 이론으로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계약의 관념으로 이루어졌음은(예컨대 토마스 홉스)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계약관념의 철저한 적용은 정치권력 또는 주어진 질서를 옹호하기 보다는 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정치사상가들의 주요작업은 계약설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공동체를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루소의 일반의지론이나 시민종교로서의 애국심에 대한 논의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 경우였다.

그러나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계약설로써는 공동체-국가에 관한 만족스러운 이론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론적 결함을 예리하게 파악한 헤겔은 국가의 관념을 구성함에 있어 서구의 계약설을 포기하고 고대 그리이스의 이상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단순히 이기적 개인들의 계약으로 맺어지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윤리적 실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인들의 이기적 행동들이 상호 충돌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이 시민사회에서 야기되는 모순들은 국가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헤겔의 이러한 주장은 이상론적 국가관을 대표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당시 프러시아의 관헌국가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는 것에 불과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 마르크스는 착안하고 헤겔이 관념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구성했던 간에 현실로서 나타나는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간의 착취-피착취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면서 국가는 바로 이러한 모순의 은폐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계급간의 착취관계라는 관점에서 유도되는 부정적 국가관이 마르크스에서 나타나는 주도적 국가이론이지만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을 마르크스가 전적으로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부정적 국가관념은 마르크스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이론임은 부인할 길이 없고 이것이 마르크스 사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전략·전술상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 예컨대 잘못 해석되었다고 생각되는 「국가소멸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국가의 필요성을 궁극적으로는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 사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부정적 국가이론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마르크스에게 그 상당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해 제시된 사회이론, 즉 사적유물론의 핵심인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공식에 의하면 국가는 상부구조의 한 부분으로 경제적 토대, 즉 생산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을 뿐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일방적 국가관은 마르크스 이후, 특히 소련 혁명후 마르크스주의가 서구전통의 비판정신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교리로서 변모하고 또한 전략이론으로 퇴화하면서 더욱 경직되었고 어떤 개인에 의한 창조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4.

소련 공산혁명 이후 공산당의 공식이론으로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면서 두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소련내의 새로운 정치권력 수립을 정당화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당독재 이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체제의 몰락을 예견하는 이론으로서 국가독점자본이론이었다.

국가독점자본이론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근거하여 현대 서구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 붕괴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논의였다. 이 이론이 담고 있는 거시적 사회이론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사적 유물론의 공식이었던 바 이 이론에서 국가기구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으로서만 규정되었다.

이 이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같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국가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1930년대 파시즘이 등장하였을 때 파시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쳐서 선명히 드러났었다. 공산당의 공식적 태도는 자유민주주의든 파시즘이든 모두가 자본주의체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었다는 이유로 두개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오류의 현실적 결과는 서유럽내에서의 반파시즘 통일전선 운동에 대한 방관으로 결과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독단론에 입각한 이론적 오류, 즉 상부구조현상의 독자적 역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점에 대한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발이 1930년대 부터 서구의 독자적 마르크스전통을 부활시키려는 운동으로 이어졌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한편 혁명적후 소련의 대서구 혁명수출운동은 소련식 무장봉기 혁명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때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갖

는 이론적 한계임을 지적한 그람시에서도 우리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람시가 지적한 바는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서구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시민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탄압기구가 아니라 시민적 동의 위에 시민사회 속에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혁명이 단순히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국가기구의 철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최소한 서구에 있어서 국가를 단순히 계급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도구로써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중대한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정통 마르크스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로써는 서구의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변모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이 2차대전까지 대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이론전개의 단서로 삼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몰락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실상 자본주의는 몰락하기는 커녕 전후 더욱 심화하면서 1960년대까지 사상 유례없는 발전상을 보여 왔었다.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과 심화과정은 국가의 합리적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점이다. 그런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됨으로써 국가의 독자적 역할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로서는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공식이 주는 제약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엄밀히 말해 그 공식의 전면적 거부가 아니라 그 공식에 대한 경직된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하버마스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알튀세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국가 이데올로기등의 상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

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전통적인 교조주의적 해석을 탈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가 궁극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계급이익을 도모하는 정치적 메카니즘이라는 논지는 포기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현대 국가의 필연성을 자본의 자기운동법칙에서 유래하고 있거나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에서 유래된다는 점을 증명코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자기 개량과정을 거쳐 초기 자본주의가 보여온 부정적 양상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체제는 궁극적으로 타도 내지는 극복되어야 할 체제인바 국가에 의한 각종 개혁방안은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지를 설득하기 위한 논증작업은 개개의 이론가 또는 학파별로 달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작업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 개혁안에서 급진적 혁명에 이르기까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여하튼간에 국가이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들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바는 원자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록크적 자유주의 정치원리는 자유 시장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상응하는 원리에 불과하고 그러한 한에서는 시대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5.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때 국가이론은 인류가 정치적 공동체의 틀 속에서 생활해 온 이래 줄곧 있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가론은 정치권력을 매개로 해서 조직되는 인간 공동체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논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국가론이 필요불가결 했던 것은 인간공동체가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매개로 한다는 점과 이 강제력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됨으로써 안정된 지배-복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 본래의 과제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론이란 곧 정치질서 구성의 원리에 관한 논의인 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근세 시민혁명후로 계속 주도적인 원리로 남아 있는 그것이다. 마르크스가 이 원리를 부정했던 것은 그 원리도 궁극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의 배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한에서는 모든 인간이 진실로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에 배치된다는 논리적 전제에서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이러한 문제를 더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문제만은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은 마르크스의 작업을 잇고 또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서양사상 전통을 잇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을 이렇게 정치사상의 전통에서 위치 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이론들의 의미와 한계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체제의 비판론으로서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을 검토할 때 이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바는 거의 없다. 실제로 자본주의체제 자체도 지난 200여 년간 꾸준히 변모하여 온 만큼 이 점에 관련하여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평가할 만한 새로운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대국가의 비민주성 또는 계급성을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연결시키는 논의는 상당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좌파 국가이론가들은 근대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없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의 사회적 기능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국가형성과정과 자본주의체제 발전과정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별개의 발전과정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오늘날 역사사회학적 고찰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 널리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원리상 여러가지 약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그러한 비판론들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다만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혁명론을 제시함으로써



써 그 수단이 목적의 의의를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 이점은 이들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는 별도로 정치권력 작용 과정이 들어내는 비장한 면을 무시하고 있는데에서 연유하는 듯이 보인다.

바로 이 후자의 문제는 현대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난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다. 비록 소련 혁명이나 중공 혁명이 낙후된 사회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정당화되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한 정치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폭력혁명은 가능성도 작지만 실현된다 하더라도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의미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의 국가론이 주로 선진자본주의 사회 비난에 맞추어져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나 또한 바로 그러한 까닭에 현대 사회주의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데간에 현실의 차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극복의 주장이 국제정치적으로 공산권의 선전활동에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있는 사회개혁의 논리로서는 보기 어렵다.

현대 좌파 국가이론이 사회주의의 현실을 분석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점과 유사하게 좌파 국가이론들이 한국의 현실문제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적합성 여부는 한국현실의 문제를 여하히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의 역사적 성격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들과는 상당히 다름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의 권위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설명함에 있어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할 바는 한국 사회정치사 발전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술인 바 이 작업이 수행되기에 앞서 외래의 이론 모델을 성급히 도입하여 해석을 시도한다면 모델에 맞춘 현실의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것은 쉽게 상상되는 일이다.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들은 실상 그 이론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현실비

판과 개혁이라는 점보다는 국가문제에 대한 고양된 관심에서 연유한 역사사회학적 논의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관련이 된다면 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역사사회학적 국가형성의 논의가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재탐구하도록 자극한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